

“동네마트인데 살려야죠”… 치킨 동나고 계산대 줄 늘어섰다

Q 르포 | 다시 문 연 홈플러스, 재개장 첫날 가보니

전국 67개 매장 영업 정상화 시동
비어있던 매대, 신선식품 등 채워져
일부 층은 여전히 영업 중단 상태

“일부러 왔어요. 우리 동네 마트인데 살
려야지.”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만난
50대 고객 김모씨는 상품이 가득 담긴 카
트를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카트에는
가공식품과 냉동식품, 우유, 초밥 등이 담
겨 있었다. 김씨는 재개장 기념으로 할인
판매하는 당당후라이드치킨을 구매하려
했지만 “오전 중 준비된 물량이 모두 소진
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는 “이처럼
홈플러스가 부족한 모습을 보니 안심된
다”고 말했다.

홈플러스가 13일 전국 67개 매장의 문
을 정식으로 열고 영업 정상화에 나섰다.
이 가운데 59개점에서는 온라인 영업도
재개했다. 지난 7일 임시 개장에 들어간
뒤 매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상품 구성
등을 보완해 정식 재개장에 나선 것이다.
이달 말까지 육류와 수산물, 과일을 비롯
해 과자·음료·패키지 베이커리 등 주요 먹거
리를 대상으로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재개장 첫날 매장에는 장을 보러 나온
고객들이 몰리면서 계산대 앞에 긴 줄이
이어졌다. 임시 개장 당시 곳곳이 비어 있
던 채소·과일 등 신선식품 매대에는 상품
이 다시 들어왔고, 가공식품 매대와 냉
장·냉동 진열대에도 상품이 빠르게 진열
됐다.

정오 무렵에는 일부 상품의 준비된 물
량이 모두 소진되면서 직원들이 빈 매대
를 다시 채우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특
히 일부 행사 상품은 오전 개점 직후 준비
물량이 동났다.

30대 고객 장은영씨는 “임시 개장 첫날
왔을 때는 매대가 꽤 비어 있었다”며 “오
늘은 매대가 채워진 것을 보니 안심이 된
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영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
었던 입점 업체들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
았다. 빵집을 비롯해 의류 매장·안경원
등에도 고객이 몰렸고, 다이소 등 일부 매
장은 쇼핑객들로 통로가 빠르게 들어찰
 정도로 붐볐다.

입점 업체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이렇
게까지 손님이 몰릴 줄은 생각하지 못했
다”며 “임시 휴업 때는 이제 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손님이 찾아오는 것을
보니 희망이 생긴다”고 말했다.

다만 매장 곳곳에는 아직 영업을 완전
히 정상화되지 않은 흔적도 남아 있었다.
일부 매대는 상품 종류가 충분하지 않아
동일한 상품을 여러 칸에 걸쳐 진열했고,
상당수 매대의 하단은 상품이 채워지지
않은 채 비어 있었다. 가전·완구 등을 판
매하던 다른 층은 매대가 완전히 비워진
채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부터 전 매장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이번 영업 재개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하고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취소되면서 가능해졌다.



13일 재개장한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의 운영 중인 입점업체 모습.

홈플러스는 향후 복층 매장을 약 1000
평 규모의 단층 매장으로 전환하는 등 영
업면적을 효율화하고 식품과 생필품, 자
체브랜드(PB) 상품을 중심으로 상품 구성
을 재편할 계획이다.

매장 문을 다시 여는 데는 성공했지만
홈플러스의 회생 여부를 가를 고비는 남
아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오는 9
월 2일 오후 3시 홈플러스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이에 앞서 12일
법원에 2차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관계인집회는 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을 심리
하고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홈플
러스는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9월 4일
까지 필요한 채권자 등의 동의를 확보해
야 한다.

결국 정식 재개장은 회생을 위한 첫 관



홈플러스의 비어있는 냉장 매대를 동일한 상품들로 채운 모습.

/김서현 기자

문에 불과하다. 홈플러스가 채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영업 재개
이후 안정적인 매출과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면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

다 높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
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정치권·노동계 “홈플러스 살려야 민생 산다”

여야 의원들 장보기 캠페인
국민들의 장보기 동참 당부

홈플러스가 다음달 4일 법원의 회생계
획안 가결 시한을 앞두고 재개장한 가운
데, 홈플러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염원
하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장을 보며 희망
을 보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에 정책위의장,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유동수 MBK홈플러스 TF
위원장, 진성준·김남근·박희승·문금주·최
기상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
표, 차규근·정춘생·백선희 조국혁신당 의
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중훈 진보
당 대표, 진교훈 강서구청장, 조주연 홈플
러스 대표이사, 박석운 홈플러스 살리기
공대위 상임대표,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
러스 지부장,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주협
의회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은
13일 홈플러스 공식 재개장에 맞춰 본사
가 있는 강서점을 찾아 ‘우리 동네 홈플러
스, 우리가 살려요’ 장보기 캠페인에 참석
했다.

홈플러스 지난해 3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했고, 다음달 4일 법
원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하지 않으면 청
산 절차를 밟게 된다.

홈플러스는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MBK 회장이 연대보증 한도를
2000억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채권자인 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13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장보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뉴스1

리츠금융그룹이 동일한 규모의 긴급운영
자금(DIP) 지원을 결정하면서, 전국 67개
매장의 문을 다시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에게 홈플러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장 보기에 동참
할 것을 요청하며, 사태를 일으킨 사모펀
드에 합당한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홈플러스를 찾아주고 많
이 장보기를 했으면 좋겠다”며 “희망을 나
누고 홈플러스와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나누는 장보기에 국민께서 많이
동참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다”고 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홈플러스(+)가 홈아
이너스(-)가 된 지 15개월이 됐다. 이제
30만 민생이 걸려있다. 국민께서 홈플러
스 살리기에 적극 나서달라”며 “마트가 잘
돼야 채권단 집회를 잘 넘어갈 수 있고,
좋은 M&A(인수합병)을 할 수 있기 때문
에 시간이 많지 않다. 홈플러스 30만 민생
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국민께서 오늘 저
녁 밥상을 차릴 때 홈플러스를 이용해달
라”고 당부했다.

김남근 의원은 “MBK와 홈플러스 경영
진은 법원의 청산 결정 이후 손 털고 나가
겠다는 생각을 하지말라. 정부도 홈플러
스 청산 후 고용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하
지 말라”며 “국회는 홈플러스 살리기에 집



차규근·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박석운 홈플러스 살리기 공대위 상임대표가 13일 재개장한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홈플러스 전용 우유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박태홍 기자

중하겠다. 9월 법원이 홈플러스를 살리는
결정을 할 때까지 홈플러스가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장식 조국혁신당대표는 “사태를 여기
까지 끌고 오신 분들의 책임을 면제하자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분명 책임을 물어
야 한다. 그래서 우리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업체를 ‘돈줄’ 내주시고, 책임있는 사
람은 ‘흔줄’ 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발언을 마친 의원들은 개
별 혹은 2인1조로 직접 카
트를 끌며 장을 봤다.

/박태홍 기자 pth7285@



metro

>> 1면 ‘모두의 창업’서 계속

창업활동자금 활용처 PG 업종까지 확대

도전자의 초기 도전 활동을 더욱 폭넓
게 지원하기 위해 창업활동자금 활용처를
온라인 결제대행(PG) 업종까지 확대한
다. AI 솔루션 품질 제고를 위해 AI·과학
기술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약 50개 내
외 기업을 엄선해 기업당 최대 3개 솔루션
을 제공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1차 모두의
창업을 통해 확인된 6만여 명의 뜨거운 도
전은 우리 사회에 창업에 대한 새로운 가
능성을 보여줬다”며 “2차 모두의 창업에
서는 더 많은 국민에게 도전의 기회를 열
고 재도전과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도전 이후에도 창업생태
계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
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기부는 1차에서의 정보 유출
을 반면교사로 삼아 2차부터는 플랫폼 보
안과 운영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기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외부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 보안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관리체
계를 개선한다. 지역별 보육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지역 허브기관을 지정하고 창업
진흥원과 지역 허브기관 간 상시 소통체
계도 구축한다. 외부 전문가와의 상시
보안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10월에 1
만명의 혁신 창업가 윤곽이 드러난다.

/김승호 기자 bada@